

한국 초·중·고·대학생들에서 약물정보습득의 방법 및 약물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평가

김진식 · 이옥상 · 임성실[#]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임상약학실

(Received January 23, 2013; Revised February 14, 2013; Accepted February 15, 2013)

Evaluation of Drug Information for Acquisition Methods and Risk of Drug Misuse in Korean Students

Jin Sik Kim, Ok Sang Lee and Sung Cil Lim[#]

Clinical Pharmacy, College of Pharmac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361-763 Korea

Abstract — Objective: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following issues - acquisition level in terms of the information on frequently used drugs of youth, access paths for the information, actual status of the use of drugs frequently used by youth, types of the used drugs, drug abuse among youth, and the consequent drawbacks. This study also takes aims at suggestion of correct role of pharmacists in consideration of drug abuse among youth. **Methods:** During the period from August 1, 2011 to October 31, 2012, a research design and a question development have been conducted. To the students of the schools that were randomly selected (elementary school's N=99, middle school's N=106, high school's N=115 and university's N=115), it was asked to complete given questionnaire from August 1, 2012 to August 31, 2012. During the period from September 1, 2012 to October 30, 2012, the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back and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m were carried out. **Results:** Drugs known to the respondents were a total of 115 different medicines and most of the drugs belonged to over-the-counter drugs. The most well known drug was pain reliever and the second most familiar drug was wound ointment. Most of the respondents found the drugs through direct use and advertisement. In everyday life,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were using over-the-counter drugs as well as health supplements. The most commonly used drug was analgesic drug. It was showed that the respondents also frequently used the drugs for improving their grades and appearances. It was shown that among the cases of drug use, there were also the cases of misuse and abuse of drugs for the respondents or people around them. Reliability of pharmacists was shown to be high and many students were also satisfied with the pharmacists' guidance for medication. **Conclusion:** Currently many students are using different kinds of drug in daily life, 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risk of misuse and abuse of drugs will be increased. Those age groups can easily engage in bad habit of drug use. Thus, promotion on accurate drug information has to be strengthened, and pharmacists are required to conduct correct guidance for drug user's medication in terms of use amount, usage, interactions among different drugs, and potential risks.

Keywords □ student, acquisition, over-the-counter drugs, drug abuse, skin care, obesity, health supplements

현재 한국의 많은 학생들이 일상에서 TV, 인터넷 등의 매체 통해 약물 광고에 쉽게 노출되어있으며, 최근 편의점에서 고카페인 음료나 일부 일반의약품의 구매가 가능해 집에 따라 관련 약물들의 구매 및 노출 기회가 증가하게 되었다. 대전·충남 소비자연맹이 2012년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학생들이 시험기간에 습관적으로 약물이나 에너지음료를 복용하고 있으며, 일반의약

품을 구입 할 때 약품표시 및 성분을 확인하지 않고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¹⁾ 또한 미국의 경우 70%의 여학생들이 자신의 체중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²⁾ 결국 학생들은 체중 감량을 위한 약물 복용에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들은 기분변화가 급격하고 예민한 시기이며, 과도한 입시스트레스로 인해 이러한 약물사용이 증가되기 쉬우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약물의 이름 및 접근에 익숙함과 더불어 약물의 대한 유해성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약물의 노출 증가 및 약물의 혼합사용, 오·남용으로 인한 약물 중독 및 위험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3,4)} 또한, 이옥상 등의 고의로

[#]본 논문에 관한 문의는 저자에게로
(전화) 043-261-3590 (팩스) 043-268-2732
(E-mail) slim@chungbuk.ac.kr

인한 약물 과다 복용 관련 연구에서, 10대 청소년 들은 비처방 의약품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타이레놀과 같은 일반의약품의 과량복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은 이에 관련 정보를 인터넷 동호회나 포털 사이트에서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⁵⁾ 이렇듯 학생들의 약물의 접근 및 오남용과 약물에 관하여 검증되지 않은 정보 유출에 대한 법적 규제나 관리는 현재 어려운 상황으로 특히 어린 나이부터 잘못 사용되는 약물이 습관화된다면 성인이 되어서까지 오남용에 의한 국민 보건, 복지에 악영향을 미치리라 사료된다. 2012년 11월 이후 한국에서도 일부 안전상비의약품이 편의점에서 판매됨에 따라, 만12세 이상의 학생들은 약물 구매가 약사의 별도의 규제없이도 더 용이해짐에 따라, 약물 오남용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학생들의 약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대한 파악과 오남용의 실태를 평가함으로써 이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청소년 건강 보호 및 예방 조치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특히 이와 관련된 약의 전문가인 약사로서의 역할의

기여 방법 및 적용에 대해 평가하여 적절한 대책 마련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 다빈도 약물의 관련 정보 인지 정도 및 정보 습득 경로, 청소년 다빈도 약물 사용 실제 현황과 사용 약물의 종류, 청소년 약물 오남용 평가 및 그에 따른 문제점을 평가하고 청소년 약물 사용에 대한 약사의 올바른 역할을 평가함으로써 이의 결과를 바탕으로 약의 오남용으로부터 청소년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보안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대상 및 기간

이 연구는 2011년 8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의 기간 중 무작위로 선출된 충청남도 논산시 D초등학교, 대전광역시 유성구 H중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Y고등학교, 대전광역시 C대학교,

Table 1 - Questionnaire

1. 성별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연령: _____ 세(한국나이) ① 남 ② 여	12. 평소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때 약사에 의한 약물 설명을 들을 적이 있는지요? 1) 있다 2) 없다.
2. 당신의 교육기관은 어디에 속합니까?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대학교	12-1 약사의 약에 대한 설명이 이해하기 쉬웠는가? 1) 쉽다. 2) 어렵다. 3) 상관없다.
3. 평소 알고 있는 약 이름은 모두 적으세요.	13. 학생이 현재 궁금한 약은 있는가? 1) 있다. 있다면 무엇인가? _____
4. 위 3번에 적은 약 이름 중 사용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모두 적으세요. (예: 감기약, 소화제, 변비약, 영양제..) 예-약 이름(사용목적)	2) 없다. 3) 관심 없다. 4) 기타 _____
5. 위의 질문에 답변한 약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모두 적으세요.	14. 현재 복용중인 약물은 있는가? 1) 있다 2) 없다.
6. 혹시 본인이 사용했던 경험이 있는지요? 네 아니오	15. 혹시 현재 복용중인 것이 있는지 있으면 모두 선택하세요. 1) 건강식품 2) 비타민 3) 한약 4) 기타 _____
7. 혹시 성적을 올리기 위해 학생들 사이에 알려진 약물이 있으면 아는 데로 모두 적으세요.	16. 본인은 비타민을 다음 중 무엇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가? 1) 약 2) 건강식품 3) 모르겠다. 4) 기타 _____
8. 혹시 비판 또는 미용 목적으로 학생들 사이에 사용되는 약물이 있으면 아는 데로 모두 적으세요.	17. 본인은 약에 관한 지식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1) 의사 2) 약사 3) 부모님 4) 본인 5) 기타 _____
9. 7번과 8번 문항에서 위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험이 있다면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약물을 모두 적으세요. 예) "약물명-사용목적-회복용량-얼마나 오랫동안" 인지 순으로 적으세요. 예) 얼마나 자주?:	18. 현재 청소년들이 가장 관심 갖는 건강에 관련된 것은 무엇인가? 1) 미용향상(비만포함) 2) 성적향상 3) 기타 _____
9-1. 성적향상 또는 비판, 미용목적을 위해 사용한 경험이 있다면 이런 사실을 타인이 알고 있는지요? 1) 부모님께서도 알고계시다. 2) 친구만 알고 있다. 3) 혼자서 그냥 복용했다. 4) 기타 _____	19. 본인은 약을 잘못 복용하여 아픈 적이 있습니까? ① 네 ② 아니오
10. 청소년들 사이에서 약물에 대한 지식은 주로 어떻게 습득하나? 1) 인터넷 2) 친구를 통해서 3) 부모님을 통해서 4) 의료진을 통해서(아파서 병원방문)	19-1. 약을 잘못 복용한 적이 있다면 그 이유를 아래에 적어주세요
11.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까? ① 네 ② 아니오	20. 주변에서 약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① 네 ② 아니오
11-1. 웹사이트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아래에 모두 적어주시시오.	20-1. 9번 문항에서 '네'라고 답한 경우, 어떤 상황인지 아래에 적어주세요
11-2. 위에서 답한 웹사이트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① 네 ② 아니오	_____
11-3. 웹사이트를 사용한 적이 있다면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① 만족한다 ② 다소 부족하다	_____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 B대학교, 서울특별시 H대학교, 서울특별시 S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방법

설문지를 배포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선생님의 지도아래 학급에서 작성 받은 후 직접 전달 받았으며, 대학교의 경우는 각 학교 학생에게 설문지 직접 전달한 후 우편으로 회신하였다.

설문지 문항 개발 및 구성

설문지는 크게 20가지의 문항(응답자 기본정보, 약물인지정도, 약물정보습득경로, 오남용 경험, 학생들이 느끼는 약사의 역할)로 구성하였으며 각각 문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적인 문항을 첨가하였다(Table I).

설문지 평가

총 440부의 설문지가 배부된 후 회수되었으며 이 중 응답이 불충분한 5부를 제외한 435부(초등학교-99부, 중학교-106부, 고등학교-115부, 대학교-115부)를 응답자 기본정보, 약물인지정도, 약물정보습득경로, 오남용 경험, 학생들이 느끼는 약사의 역할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통계방법

설문지 문항의 정량적인 항목의 결과는 Microsoft Excel 2007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을 하였다.

Table II – Patients' characteristics

	Male	Female
University	37	78
High school	52	63
Middle school	56	50
Elementary school	50	49

연구결과

연구 대상자의 기본 특성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연령분포는 10대, 20대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Table II).

약물정보 인지 정도 및 습득 경로

학생들이 알고 있는 약물의 종류는 총 115가지 약물로서 17가지 분류(일반의약품 12분류, 전문의약품 7분류)에 해당하는 약물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다.^{6,7)} 계열에 따라서는 영양제(22가지: 비타민제-17가지, 간장보호제-2가지, 철분제-1가지, 홍삼제제-1가지, 관절영양제-1가지)와 피부과계약물(22가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진통소염제(16가지), 소화기약(10가지), 감기약(8가지), 이비인후과약(7가지), 치과구강용약(4가지), 안과계약(4가지), 내분비계약(4가지), 한방약(4가지), 심혈관약(3가지), 간장질환용약(2가지)의 순이었다(Fig. 1).

각 학교별로 알고 있는 약물을 상품명으로 5위까지 나열한 결과에 따르면, 타이레놀 성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약이었다(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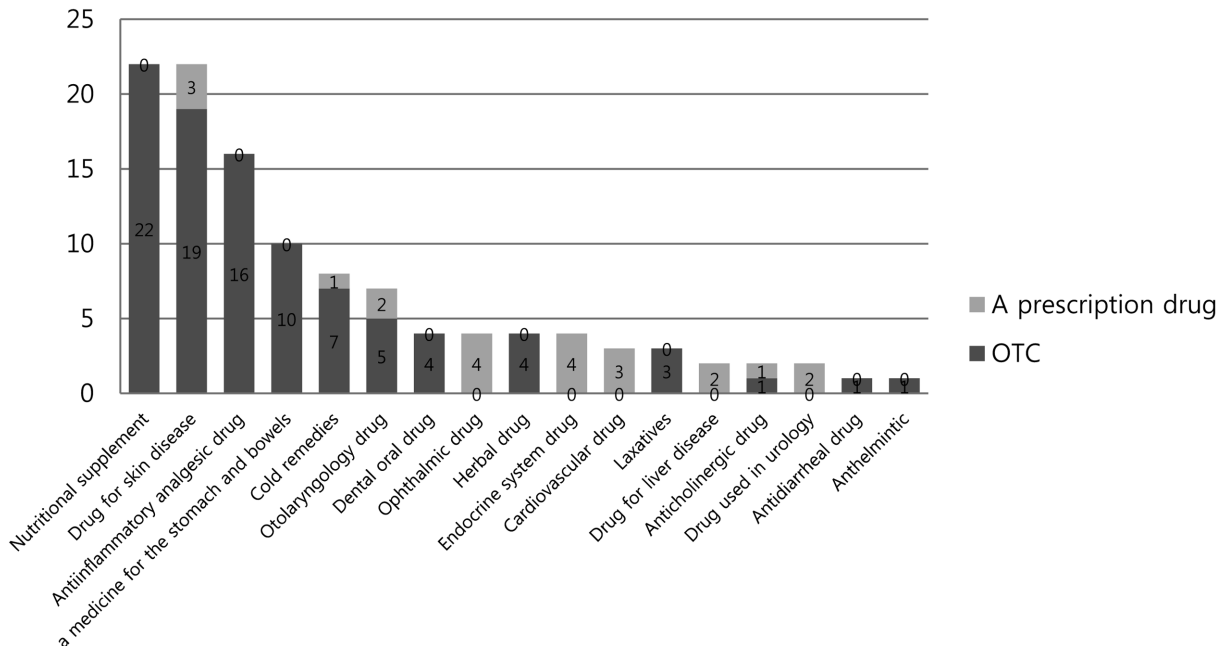


Fig. 1 – Commonly known drugs by stud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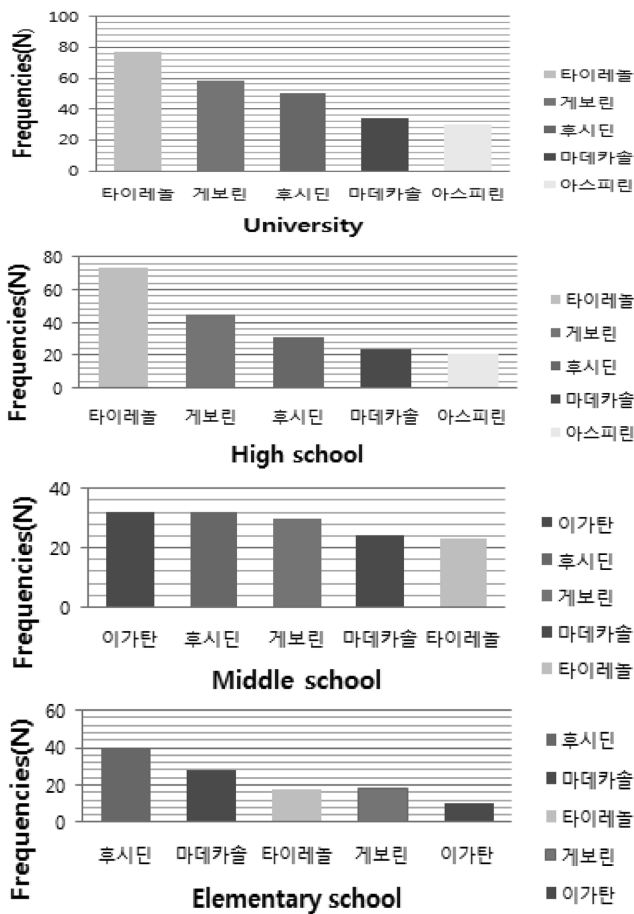


Fig. 2 – TOP 5 of commonly known drugs per each school.

생-77명, 고등학생-73명, 중학생-23명, 초등학생-18명). 다음으로 는 게보린(대학생-58명, 고등학생-45명, 중학생-30명, 초등학생18 명), 후시딘(대학생-50명, 고등학생-31명, 중학생-32명, 초등학생-40명), 마데카솔(대학생-34명, 고등학생-24명, 중학생-24명, 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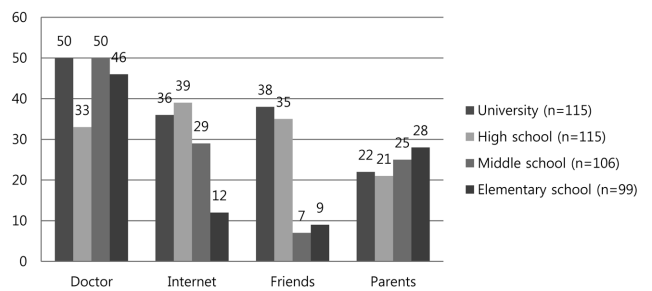


Fig. 4 – Route to get drug information by students.

학생-28명), 아스피린(대학생-30명, 고등학생-21명), 이가탄(중학 생-32명, 초등학생-10명) 순이었다(Fig. 2).

학생들이 약물을 알게 된 경로로는 직접사용을 해본 경험(대 학생-57.3%, 고등학생-42.6%, 중학생-58.4%, 초등학생-57.6%)이 가장 많았으며, 광고(대학생-46.1%, 고등학생-32.2%, 중학생-39.6%, 초등학생-22.2%)의 영향도 두 번째로 큰 비율을 차지하 였다(Fig. 3).

약물에 관한 정보 습득 경로로서, 고등학생그룹에서만 인터넷 (33.9%)이 가장 많았고, 초등학생, 중학생 및 대학생들은 의사 (대학생-43.5%, 중학생-47.2%, 초등학생-46.5%)로부터 정보를 얻 는다고 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Fig. 4). 한편 대부분의 학생들은 약물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고(대학생-85.2%, 고등학생-87%, 중학생-96.2%, 초등학생-93%), 약물정보 전문사이트를 사용해본 적이 있는 학생들의 만족도는 대학생-35.3%, 고등학생-13.3%, 중학생-50%, 초등학생-14.3%이었다.

다빈도 약물 사용 실제 현황과 사용 약물의 종류

응답한 학생들 가운데 절반(대학생-50%, 고등학생-49.1%, 중 학생-42.5%, 초등학생-46.5%)은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있었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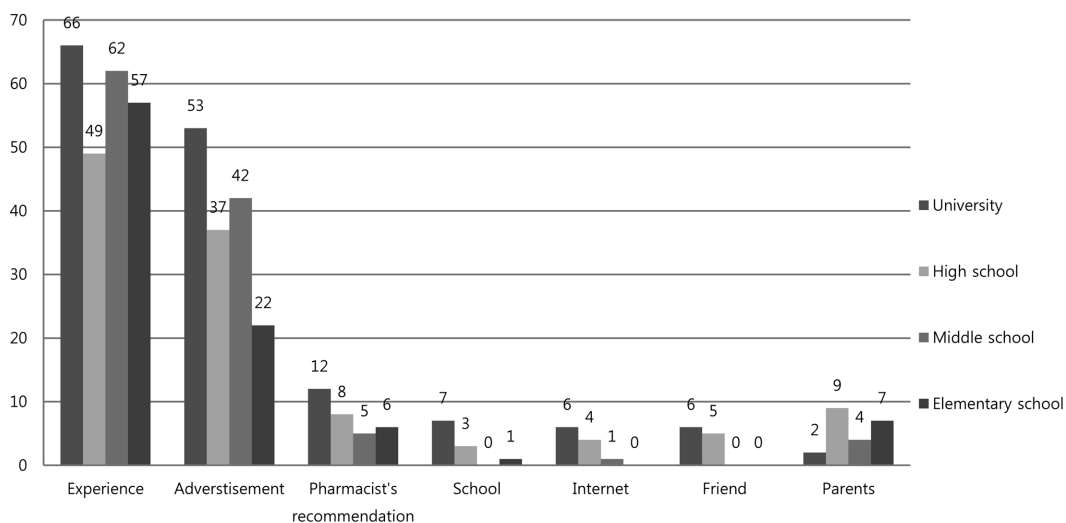


Fig. 3 – Route of drug information for stud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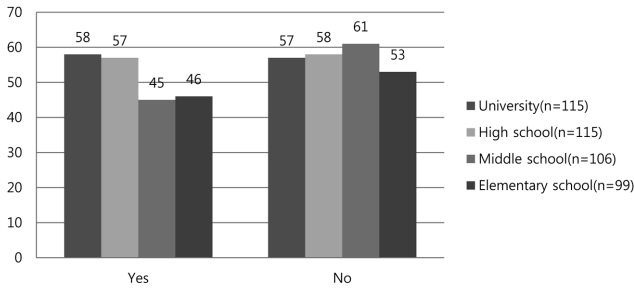


Fig. 5 – Proportion of currently taking medicine by stud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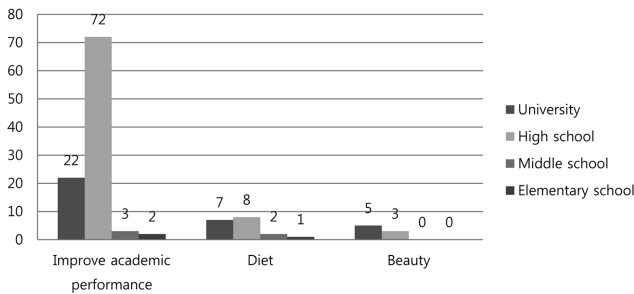


Fig. 6 – The type of current medication for stud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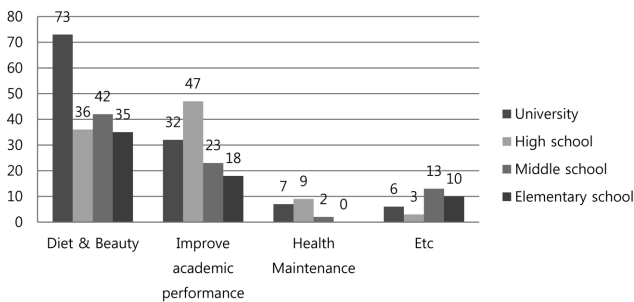


Fig. 7 – The type of interests in drug for students.

며(Fig. 5), 대다수 학생들(대학생-97.4%, 고등학생-80.9%, 중학생-83.8%, 초등학생-75.8%)은 약물 사용 시 약물의 사용목적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적향상을 위하여 고등학생은 62.6%, 대학생은 19.1%이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Fig. 6). 학생들은 미용, 체중감량에 대한 관심(대학생-63.5%, 고등학생-31.3%, 중학생-39.6%, 초등학생-35.4%)이 가장 높았으며, 특이적으로 고등학생의 경우는 성적향상에 대한 항목에서 실제사용(62.6%)과 관심(40.9%)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Fig. 7).

오남용 보고

약물의 건강증진의 목적 이외의 체중감량, 피부미용, 성적향상을 위하여 약물을 복용한 경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체중감량을 위해 학생들이 사용하는 약물 중 위험성이 우려되는 약물로 식욕을 억제하는 기전의 리덕틸(대학생-1명), 이노제(대학생-1명, 고등학생-1명), 변비약(대학생-2명, 고등학생-3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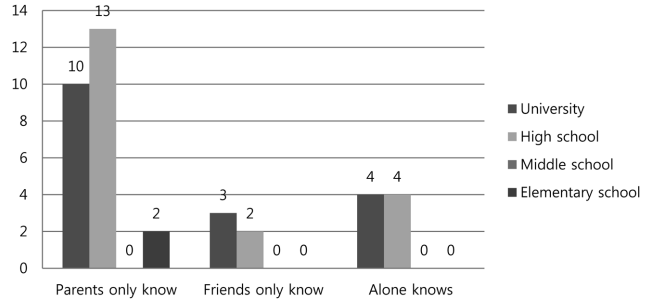


Fig. 8 – Who knows the current medicine of stud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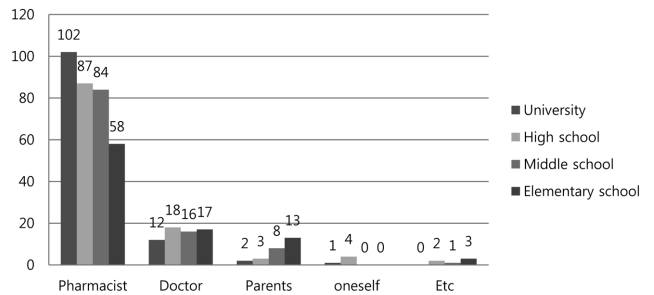


Fig. 9 – Who is most well-known about dru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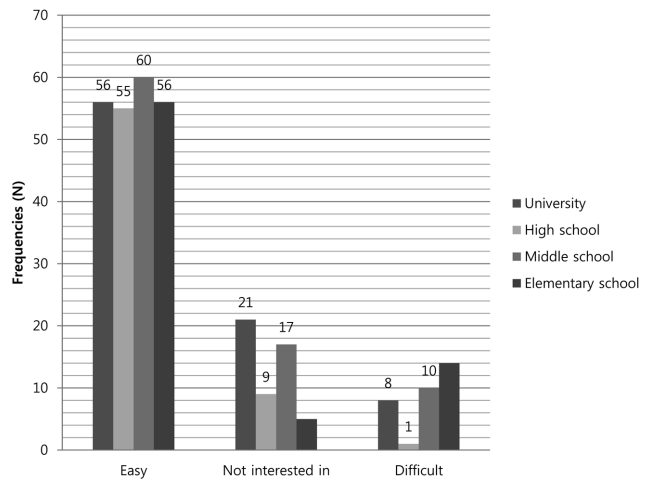


Fig. 10 – The degree after received consulting of drug medication.

있었으며,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클로렐라(고등학생-1명), 허벌티(중학생-1명)를 사용하는 경우, 레몬디톡스같은 식품을 복용하는 경우(고등학생-3명), 그리고 체중감량과는 전혀 무관한 타이레놀을 복용한 경우(중학생-1명)가 있었다.

피부미용을 위해 학생들은 여드름 치료용 연고(대학생-3명, 고등학생-3명)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대학생 중 1명은 하이치울씨(복합비타민제제), 다른 1명은 여드름 감소를 위해 머시론(피임약)을 복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성적향상을 위해 학생들은 카페인 함유 음료를 복용(대학생-13.9%, 고등학생-57.4%)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약물의 복용에 대하여 부모님이 알고 있는 경우가 다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다(Fig. 8).

청소년 약물 사용에 대한 약사의 역할

약에 관한 전문가를 물었을 때 학생들은 약사라고 답변한 경우(대학생-88.7%, 고등학생-75.7%, 중학생-79.2%, 초등학생-58.9%)가 가장 많았다(Fig. 9). 약사에게 복약지도를 받은 적이 있는 학생들은 대학생-73.9%, 고등학생-56.5%, 중학생-82%, 초등학생-93%로 비교적 많은 편이었으며, 이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학생-48.7%, 고등학생-47.8%, 중학생-56.6%, 초등학생-56.6%가 '이해하기 쉬웠다'고 응답하였다(Fig. 10).

고 찰

한국 학생들의 약물에 대한 인지경도와 약물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한 약사의 역할과 제도적 장치를 파악하고자 전국의 학생들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초등학생(99명), 중학생(106명), 고등학생(115)명, 대학생(115명)으로 학교별로 고르게 분포된 결과를 얻었다.

약물정보 인지 정도 및 습득 경로

학생들은 17개월의 다양한 약물을 알고 있었으며, 일부 학생들의 경우 내분비나 순환기 계의 전문의약품에 대하여서도 알고 있기도 하였다. 약물을 알게 되는 경로로 직접 사용을 해봄으로써 알게 되는 경우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광고가 순위를 차지했다는 점은, 학생들에게 광고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함부로 광고만 보고 약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감시가 필요하다. 또한 정만수의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바와 같이,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광고로 인하여 의약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습득하지 않기 위하여, 허위, 과장광고를 만드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시하는 광고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⁸⁾ 일상에서 흔히 접하고 있는 광고의 영향이 큰 편이므로 잘못된 정보로 인한 무분별한 약물 사용이 따르지 않도록 일상적으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일반 의약품 및 건강 식품 구매에 대한 법적 제제가 관리가 엄격하지 않아 약물에 접근이 용이한 실정인 만큼 많은 약물에 쉽게 노출되어 있었다. 타이레놀, 게보린, 펜잘 등의 아세트아미노펜을 함유한 진통제의 경우 간손상, 혈소판 감소, 호흡 곤란, 복통, 기려움증, 발진을 유발 할 수 있고, 인사돌, 이가탄은 알레르기 일으키기 쉬운 사람에게는 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15세 미만 어린이에게 제한된 약물이다. 또한 후시딘, 마데카솔과 같은 항균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발진이 나타날 수 있다. Holmes 등의 연구에 따르면, 안전성이 높은 편인 일반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성분의 약

물인지 모르고 일일최대용량보다 많이 복용을 한다거나 자가 진단으로 오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보고되고 있다.⁹⁾

약물 정보를 얻는 경로로서 인터넷을 통해 약물 정보를 얻는 경우도 상당히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 정보의 신뢰도가 떨어지거나, 자가 처방으로 인한 남용이나 오용, 심지어 초등학생의 경우 연령 제한이 있는 약물에 잘못된 접근을 할 우려가 있다. 친구, 부모님으로부터 약물 정보를 얻는 경우도 있었으나, 직업이 의료관련분야가 아닌 경우, 정확한 약물 정보를 얻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을 할 수가 없으며 향후 정확한 약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를 인지시키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한다. 온라인에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 정확한 웹사이트를 작성한 사람은 중학생1명-약학정보원 대학생 2명(1명-KFDA, 1명-김스온라인)이었다. 의약정보 사이트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사용해본 적 있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낮은 편이었다. 의약정보전문사이트에 대한 홍보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으며, 공익광고나 캠페인 등 여러 홍보 방안이 활용되어 사용자가 많아진다면 사회적으로 유익한 결과가 얻어질 것으로 보인다. 요즘 학생들은 인터넷이 더욱 친숙하기 때문에 이러한 웹페이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올바른 약물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를 교육시키어, 안전한 약물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더욱 유익할 것으로 사료된다. 의약정보사이트에 대한 홍보와 학생들이 검색하여도 알기 쉽도록 사용 방법이나 언어를 쉽게 하거나 시각 및 청각 자료를 통하여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빈도 약물 사용 실제 현황과 사용 약물의 종류

학생들 중 절반 정도는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학생들의 절반정도가 복용중인 약물이 있었으며 그 종류로는 비타민, 건강식품, 한약 등이었다. 대부분 약물의 용도를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약물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으며, 이 정도의 빈도라면 자신이 복용하거나 주변에서 흔하게 약물을 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약물에 쉽게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쉽게 접함으로 인해 오히려 약물에 대한 경각심이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10,11)}

건강을 위한 약물의 복용빈도는 비타민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건강기능식품, 한약 순으로 나타났다. 비타민도 다른 약물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기 약물로 인한 상호작용, 같은 성분에 대해 무지에 의한 과도한 용량 복용에 대한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약물의 정확한 용법, 용량, 주의사항 등에 관한 복약지도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¹²⁻¹⁴⁾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약물 계열로, 건강의 목적이기 보다는 성적, 미용, 비만에 관련된 것이었다. 성적 향상을 위해

총명탕, 바이오톤, 아이페이스, 비타500, 홍삼 등을 복용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이 가운데 가장 많은 학생들은 카페인 음료(함량: 박카스(30 mg/병), 핫식스(80 mg/병), 레드불(62.5 mg/병), 번인텐스(80 mg/병))를 응답하였다. 카페인 과다 복용에 관하여 우려가 되는 부분은 위험성에 대해 자각이 없이 습관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의 하루 권장 카페인 섭취량은 125 mg으로 카페인 음료 2잔이면 초과되는 양이다.¹⁵⁾ 기타의 의견은 현재 가지고 있는 질환으로 인해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답변하였다.^{16,17)}

오남용 보고

피부 미용이나 체중 감량 등의 목적으로 약물은 복용하는 경우에, 학생들은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약물을 오남용 하고 있는 사례들을 볼 수 있었다. 체중감량을 위해 사용한 약물로 응답한 가운데에는 위험한 약물이 사용된 경우(리덕틸, 이노제, 변비약)이나 오용된 경우(타이레놀)이 있었으며,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클로렐라, 허벌티)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여드름 치료제로써 경구피임제를 복용한 경우도 있었는데, 오남용으로 인한 호르몬 불균형의 위험성이 우려되는 사례였다. 또한, 성적향상을 위해 박카스나 핫식스, 레드불과 같이 고it량 카페인 음료를 복용하였는데, 카페인 중독으로 인한 위험성이 간과되는 것 같아 판매처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청소년들에게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약물 사용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는 부모님도 약물 사용에 대하여 알고 있는데, 부모님이나 주변 보호자 및 관리자가 이러한 약물 사용의 위험성에 대하여 경고하고 제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주기적으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청소년 약물 사용에 대한 약사의 역할

학생들의 약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복약지도에 대한 거부감이 적으므로 이런 기회를 통해 약사의 역할을 정립할 수 있다고 본다. 약물사용의 전문가에 의한 적절한 개입이 없으면, 학생들은 어린 나이에 잘못된 약물사용이 고착화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약사의 지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행하여질 필요가 있다. 또한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주치의의 통틀 면밀한 진료와 상담을 받는 것처럼, 약에 관한 궁금증과 건강에 관해서 약사의 역할도 좀 더 밀접한 관계가 형성된다면 국민보건에 더욱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된다.

1999년 발표된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을 받아 본 경우 33.5%가 약물 오남용 해서는 안되겠다는 확신이 섰고, 55.7%는 약물 오남용의 무서움을 알 수 있었다고 응답하여,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의 효과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마약류, 약물오남용을 근절시

키기 위해 전문인(의사, 약사)의 교육 필요성은 전체 응답자의 81.1%가 전문인의 예방교육이 계속 필요하다고 응답했다.¹⁸⁾

현재 한국의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는 각 지역별로 마그미약사가 학교에 찾아가 학생들에게 불법 약물 및 담배, 알코올의 유해성에 대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¹⁹⁾ 이러한 시간에 마약이나 유해 약물 뿐 아니라 학생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쉽게 간과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나 건강식품의 오남용 시의 위험성에 대하여서도 강의하고 홍보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겠다. 또한 위험 상황 발생 시나 궁극한 사상이 발생 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의약정보사이트 이용법이나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전문 약사의 hot-line 구축에 관하여서도 필요한 부분이라 사료된다.

결 론

한국의 초등학교부터 대학생들의 약물에 대한 인식과 사용 실태에 관하여, 실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비타민, 피부과약, 진통소염제를 포함한 다양한 계열의 약물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실제 복용 중인 약물들은 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의 약물보다는 성적향상, 피부 및 체중 감량의 미용 목적의 약물들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이러한 약물 복용에 있어서 잘못된 상식으로 위험한 약물을 복용하는 등의 오용되는 사례도 있었으며, 이러한 약물 복용에 대하여 부모님도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학생들이 약물을 아는 경우는 직접 복용하고 있거나 광고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경우가 가장 컸기 때문에, 학생들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매체에서의 광고에서 허위 - 과장 광고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의 오남용이 심한 약물의 경우 그 위험성에 대하여서 광고에서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은 약에 대한 전문가로써 약사를 가장 높게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청소년의 약물 구매 시, 구매 목적에 대하여 정확히 질의하여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우며, 의약품 이외에 건강식품에 대하여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약사들이 구매하는 학생들이나 보호자에게 정확한 복약지도와 오남용시의 위험성에 대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사 사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2010-0003810).

참고문헌

- 1) 대전·충남 소비자연맹: 지방 청소년의 일반의약품 복용실태조사

- (2012).
- 2) Michael, F., Debra, T., Thomas, D. and Patricia, D. : Adolescent's perceptions of relative weight & self reported weight loss activities. *J. School Health* **62**, 372 (1992).
 - 3) 김경빈 : 청소년 유해약물 유통과 사용실태 조사 (1998).
 - 4) 주왕기, 김경빈 : 청소년약물남용 관련법개정 및 새로 지정되어야 할 유해약물 목록작성 연구 (1998).
 - 5) Lee, O. S., Cheon, Y. J., Kim, J. T. and Lim, S. C. : An analysis of self-poisoning for suicide and antidote uses in emergency room of a hospital in Korea, *Korean Journal of Clinical Pharmacy* **22**, 304 (2012).
 - 6) 보건복지부고시 제2000-23호 :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 (2000).
 - 7) 신현택 : 의약품 분류 체계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2005).
 - 8) 정만수 : 어린이와 청소년 광고의 규제에 관한 고찰 (2000).
 - 9) Holmes, J. : OTC contribution to primary care (usage of over-the-counter medicines). *Chemist & Druggist* **21** (1997).
 - 10) Kim, K. L. : Research of adverse drug reaction. *Korea Consumer its Agency* **15**, 5 (Korean) (2008).
 - 11) Cho, Y. C. and Yang, H. K: Knowledge and attitudes of some college students on general drugs that they use by self judgment and status and relevant factor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4**, 45 (Korean) (2007).
 - 12) 이은숙 : 소비자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례 분석 및 신고 활성화 방안연구. 식품의약품 안전청 (2008).
 - 13) 강정화 :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소비자 단체 간 의약품 부작용 안전성 정보교류 강화방안연구. 식품의약품 안전청 (2008).
 - 14) Park, B. J. : Pharmacovigilance for OTC Drugs. *Journal of Toxicology and Public Health* **32** (2004).
 - 15) Lee, B. H., Park, Y. S., Kim, J. S., Yoo, J. H. and Lee, J. K. : Caffeine consumption and its related symptoms in university students. *J. Prev. Med. Public. Health* **28**, 9 (2007).
 - 16) 고복자 : 청소년기 약물남용. 대한의학협회지 **34**, 1166 (1991).
 - 17) Huberty, D. J., et al. : Adolescent chemical dependency. *Perspective in Psychiatric Care* **16**, 21 (1978).
 - 18)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광역시지부 :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조사 보고서-대구광역시 중-고등학생 대상- (1999).
 - 19) KAADA Homepage, www.drugfree.or.kr.